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 탐색

홍 미 화

춘천교육대학교

I. 들어가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그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다문화적 시민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의 보편적 주류 문화와 더불어 소수 집단들의 하위문화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적 사회로의 진입은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교육을 요구한다.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소수자 연구는 여성, 장애인, 아동, 홈리스 등 자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경제대국으로의 발전을 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결혼 이민자와 그로 인한 정주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는 과거와 다른 유형의 소수자를 인정하고 연구할 이유였다. 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자국민의 인권 중심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유형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적 측면을 포섭하게 되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초기부터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수자 문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한국인과 다른 타자를 전제로 연구된 것이 아니었다. 다문화교육이 곧 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아닌 것이다. 본질적으로 다문화라는 개념은 주류문화에 억압된 소수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다문화는 한 사회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즉 한 집단이나 사회내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담긴 특정한 인간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 이들이 상호 의존하여 그 집단을 이해하는 차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본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특정하고 다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 칭하는 것은 기존의 거대주류 문화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을 전제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이나 민족은 하나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다인종 내지 다민족과 동일시하는 인식론적 오류(박승규, 홍미화, 2012: 156)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으로 대변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그동안 '소수자'에 관련한 교과교육적 노력은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실천되어 왔다. 알다시피 사회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다루는 교과이다. 물론 공동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이 국가와 사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는 있으나, 인간이 지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권리를 상호 인정하는 시민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성을 갖는다. 사회과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을 강조해 왔으며, 역사적·문화적으로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장애인,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 등이 처한 문제와 사회적 해결방안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인정은 그 자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이전에도 사회과교육에서는 사회적 약

자 내지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이를 더욱 강화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사회과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의 유형과 개념,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사회과수업을 설계한다. 그들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수자를 검토하고 비판 분석하면서 자신의 수업에서 새롭게 재현한다. 재현된 소수자는 예비교사들이 강조하는 소수자이며, 이를 탐색하는 일은 소수자교육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교육기관은 예비교사의 소수자 인식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고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새롭게 드러나는 소수자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본고의 2장은 소수자 개념과 사회과교육에서의 소수자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며 3장은 2007과 2009개정 초등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소수자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4장은 실제로 예비교사들이 설계하고 시연한 소수자 관련 수업 구성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교육을 비판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사교육에 기대하는 소수자 관련 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소수자와 관련한 선행연구

1. 소수자의 개념

소수자 소수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소수자 연구의 초기학자인 Wirth(1945: 347)는 소수자를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 스스로를 집단적 차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소수자의 개념을 개별주체보다는 집단외부와의 관계로 인한 소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Farley(2000: 15)는 소수자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권력, 특권, 세력 등이 부족한 집단'으로 정의하여, 차별적 의미보다는 권력의 세기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Douglas(1966:17-21)는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징체계, 즉 질서와 위험이라는 상징체계에는 이를 정돈하고 절제하는 '우리'와 일탈하는 '타자'가 있는 데, 여기서 타자의 개념이 소수자라고 칭하며 두 학자와 달리 소수자의 개별적 타자성에 주목하였다.

한편 박경태((2008: 13-17)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고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 속에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그들만의 집단의식이 있으며,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모두 소수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영평(2007:110-111)은 소수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너무도 다양하여 엄밀한 정의가 어렵다고 하면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언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명명한 연구들이 있다. 구정화(2013: 33)는 사회

적소수자는 한 사회에서 성, 연령, 경제력, 인종 및 종족,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힘이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설규주(2013: 57)는 한 사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나 신체적 조건 등이 달라 주류 혹은 평균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이들의 정의는 특정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보편성에서 벗어나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등을 지니지 못하여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의미를 갖는 소수자 개념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분하는 준거는 있으나,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 간의 개념상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이 소수자의 사회적 발생 내지 편견을 강조하고,¹⁾ 소수자의 의미를 단순히 '다수자의 반대 개념으로 구성원의 수가 적은 약자' 혹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될 문제(박승규·홍미화, 2012: 161)²⁾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소수자' 개념에는 주변의 집단과 권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차별과 편견을 받는 사람들 내지 집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소수자'에 대한 뚜렷한 정의로 제시할 수는 없다. 이 이유는 소수자의 의미와 유형이 사회의 시대적 공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과거의 소수자는 신분이나 지역, 성 등 주어진 선천적 요인으로 결정된 반면, 오늘날의 소수자는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선택과 결정, 사회·문화적, 지리적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다. 특정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주류 문화, 그리고 편견과 차별의 영역이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소수자는 살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보편성과 관련되면서도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 사회과교육에서의 소수자연구

사회과교육에서 소수자연구는 최근 인권과 다문화교육 방향에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나달숙(2011, 2013)은 인권교육의 현황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강명숙(2012)은 최근 5년 이내의 인권교육 연구동향을 토대로 다문화교육적 측면에서의 반편견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상준(2014)은 소수자의 차별에 주목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설규주(2013)는 2009개정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사회적 소수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서가 현실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편 소수자 교육을 적극 강조한 연구로는 한동균(2009)의 연구가 있다. 그는 소수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다문화연구를 비판하고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서 나아가 소수자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정경미(2010) 또한 소수자교육에 공감하고 캐나다 초등사회과교과서에 나타난 소수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구정화(2012a, 2012b, 2013)는 예비초등교사와 초등학생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의 편견이

1) 본고에서는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크게 구별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를 강조하여 기술할 경우 사회적소수자로 칭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윤수종(2012:10)은 소수자를 '표준화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배제의 대상에서 저항적 주체로 표현한 바 있다. 즉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 소수자 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위험성과 이를 해소할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혜란(2013)은 소수자 교육의 자료로서의 미디어자료를 소수자의 유형과 위치성으로 분석하여 소수자 교육의 편견성을 확인하였다. 박승규·홍미화(2012)는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소수자 되기’를 제안하며, 기존의 소수자 연구와 달리 소수자의 타자성과 배제성 대신 소수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국내연구들은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문화와 인권교육적 측면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입장에서 나아가 독자적 위치를 확보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수업 실천적 연구는 전무하다. 다문화사회로의 도래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지 못한 이유는 소수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실제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III. 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소수자

1. 사회과교육과정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 내용

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소수자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소수자 이미지로 부각된다. 특히 초등사회교과서는 사회과교육과정을 반영한 유일무이한 국정교과서체제이다. 이는 사회과교과서에 제시된 소수자 내용 그 자체가 정확하고 불변적인 사실로 각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만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자체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적용되는 2007개정과 2009개정 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소수자관련 내용을 동시에 분석하기로 한다.

<표III-1> 2007개정 및 2009 개정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 나타난 소수자관련 성취기준

구분	학년	단원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영역
2007 개정	3학년	(6) 다양한 삶의 모습	⑥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문화 다양성
	4학년	(6)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⑥ 생활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문화다양성 인권
	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④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인권
2009 개정	3-4학년	(9) 다양한 삶의 모습	④ 문화적 차별과 편견이 나타난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차별
		(12) 사회변화와 우리생활	④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인권
	5-6학년	(4) 우리나라 민주정치	②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인권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소수자관련 내용은 3,4학년의 같은 단원명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삶의 모습’ 단원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는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과 편견을 겪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2007개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개념을 동시에 구분하여 제시한 반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수자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적 용어로 지칭하여 제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특히 2009개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을 중시하여 다루고 있다. 개정에 따른 소수자 관련 내용의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대체한 것은 특징적이다.³⁾

2.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 내용분석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처럼 소수자와 관련한 최초의 직접적 기술은 4학년 2학기 단원이다. 이에 교과서 분석은 각 교육과정 모두 이 단원에 한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교과서 분석 단원은 2007개정 4학년 2학기 3단원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의 5주제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2009개정 4학년 2학기 2단원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의 4주제 ‘소수자의 권리보호’이다.⁴⁾

<표III-2> 2007개정 및 2009개정 초등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소수자 관련 내용

구분	2007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변화특징
학년	4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단원	3.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2.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주제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 128쪽-133쪽(총6쪽/140쪽 4.3%)	소수자의 권리보호(94-103쪽) 총10쪽(전권160쪽)전권대비 6.3%	쪽수 증가
교과 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개관: 소수자의 범위와 개념, 소수자 권리보호의 태도 * 살펴보기: 생김 모습과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들 사례찾기, 소수자개념 * 풀어보기: 소수자가 당하는 차별 사례와 인권 침해 사례찾기, 소수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유 생각하기 * 매듭짓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토의 * 되짚어보기: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 더 나아가기: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편지쓰기 <p>☞ 소수자나 소수자 침해사실에 대한 제시 없이 학생조사활동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에 대하여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의 뜻과 사례 - 소수자의 기준과 범위 *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례와 해결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어려움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차별사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읽기자료>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이야기(레인보우 함창단) - 북한이탈주민의 뜻과 어려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례 * 인권의 의미와 소수자인권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읽기자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주는 도움(어울림순찰대) 	<p>소 수 자 의 개념 확장</p> <p>소 수 자 의 차별사례와 해결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p> <p>소 수 자 가 우리 사회에 주는 도움 제시</p>

3)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007과 2009개정에서 지칭한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와 같은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회교과서 6학년 2학기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 보호받아야 할 인권체제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을 장애인,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환자, 이주노동자로 제시하고 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인권적 측면에서 기술한 바 있다.

4) 2009개정 4학년 2학기 교과서는 현재 교육부 최종 정본작업이 진행 중으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2014. 5. 15일 현재의 교육부 감수 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주제마무리: 소수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알기	
소수자 사례 및 편견 요인	*사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원손잡이 어린이, *편견요인: 피부색과 생김새, 경제적 능력, 장애유무	신체조건(비만어린이), 종교의 차이, 성별의 차이(남여), 재산의 유무, 피부색차이, 출신지차이(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유무(휠체어 탄 어린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문화가정어린이와 어머니, 북한이탈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신체조건, 성별, 종교로 인한 소수자 의미 추가
소수자 개념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생활방식이나 생긴 모습이 달라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변 다수 사람들과 행동이나 모습, 생각, 교육과 재산 정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구성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 여부로 결정됨.	약자의 위치보다 는 편견과 부당성 강조

2007개정과 2009개정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 내용은 <표Ⅲ-2>와 같이 변화하였다. 관련 쪽수의 증가도 큰 변화이지만,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우선 소수자와 관련한 정의에서 2007개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생활방식이나 생긴 모습이 달라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제시한 반면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주변의 다수 사람들과 행동이나 모습, 생각, 교육과 재산 정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기술하였다. 2007개정이 생활양식과 모습에만 국한하여 소수자를 유형화한 것에 비하여 2009개정에서는 종교와 성, 재산과 교육 등 다양한 변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를 규정하는 편견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곧 소수자라는 2007개정 교과서의 기술이 사회적 약자가 곧 소수자로 오인될 수 있음에 반하여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삭제하고 구성원의 수로 소수자를 규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사례와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2009개정 교과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이 어려운 지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기술하였다. 학생들의 조사활동으로 전가하였던 2007개정 교과서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현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교과서가 단순히 동정론적 입장에서 소수자를 다룬 점과 달리 소수자의 유형인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룬 점은 큰 변화이다. 한편 2009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수자로 지칭하여 사용한다. 이는 이론상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소수자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으며, 소수자라는 개념 속에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과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성취기준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확장된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교육에서의 소수자 관련 내용은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적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다루어진다. 다문화교육 중심의 내용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형태나 성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과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모습이나 생긴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인권교육 중심의 내용에서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민주정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소수자의 인권은 개인과 사회가 특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소수자는 기본권의 사각지대

에 있음을 주목하여 기술되었으나 변화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과 더불어 확장된 소수자 유형과 소수자의 인권교육 측면에서 내용이 강화되었다.

IV. 예비교사의 소수자 관련 수업 구성 분석

1. 분석방법 및 대상

본 장은 예비교사의 소수자 관련 수업을 탐색하는 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C교육대학교 3학년 학부생의 필수교과인 초등 사회과교육2 강좌를 통하여 사회과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 및 수업시연을 경험한 학생들이 소수자 관련 수업지도안을 구성하고 시연하면서 드러내는 소수자 관련 내용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부생들은 사회과교육1강좌를 통하여 사회과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습득하였으며, 사회과교육2 강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제 수업으로 적용하며 사회현상에 대한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형성과 소수자교육의 중요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외의 여타 조건으로 예비교사의 수업구성에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교과서분석과 수업구성 및 실현에서 드러나는 소수자 관련 내용을 소수자의 개념 내지 유형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수업 사례에 나타난 소수자 관련 교육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에 나타난 소수자 유형 구분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계층 중심의 이분법적 관점을 지양하였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수자의 범주와 Hall & Rhombberg(1998)의 편견 영역⁵⁾을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에 따른 소수자 유형을 아래와 같이 재설정하였다.

<표IV-1> 한국사회의 편견에 따른 소수자 유형

기준	설명	대표적인 소수자 사례	결정요인
1. 성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대한 편견 정도	여성	대체로 선천적 결정요인
2. 연령	나이나 세대 등에 따른 편견 정도	어린이, 노인	
3. 인종	피부나 머리카락, 신체모습 등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편견 정도	흑인, 동양인, 동남아인, 혼혈인 등	
4. 성적 취향	개인의 성적인 지향성 내지 선호에 따른 편견 정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5. 신체적·정신적 능력	신체적, 정신적 능력 및 외모와 관련한 편견 정도	신체적 장애인, 정신 지체 장애인, 사회부적응자(학교 부적응자포함), 비만 등	선천적요인과 후천적 결정요인 모두 가능
6. 사회적·경제적 능력	직업이나 수입, 학벌이나 인맥 등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편견 정도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부적응자(학교부적응자포함) 등	대체로 후천적 결정요인
7. 종교적·정신적 신념	종교와 정치 등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신념의 편견 정도	소수종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8. 가족구성	가족 구성원이나 구조에 따른 편견 정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	

5) Hall과 Rhombberg(1998:5)는 인간이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갖기 쉬운 편견의 영역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성, 인종, 성애 등 10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일부 국내학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소수자의 유형 준거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한 사회에 작동하는 편견이나 차별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한국의 소수자 유형 준거로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가족, 홀리스 등	
9. 이주문화 형성	국외에서 유입한 생활양식이나 언어 등 이질적 문화 형성 요소에 따른 편견 정도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난민, 등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C교육대학교 3학년 학부생 중 초등사회과교육2 강좌를 수강한 학생 55명 중 인권 및 다문화 관련 사회과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발표한 학생 19명 중 소수자와 관련되지 않은 5편의 수업안을 제외한 총 14편의 수업지도안 및 시연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업지도안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의도를 밝히고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본시학습지도안 및 그에 따른 자료와 내용지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수자관련 수업에 대한 수업자의 의도부분은 소수자 교육에 대한 수업자의 관점과 소수자에 대한 기본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수업지도안에 대한 별도의 형식적 제약은 없었으며, 교사용지도서 등 기존 지도안에 대한 비판과 창의적 발상을 허용하였다. 연구자는 수업지도안에 표현된 소수자 관련 활동과 소재 혹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소수자 유형을 탐색하였으며, 전반적인 소수자 관련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흐름과 발문 및 학생의 답변에 주목하였다. 한편 수업시연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현된 수업현상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소수자 수업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예비교사의 수업에 나타난 활동유형과 소수자의 의미

예비교사들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서 소수자라는 용어의 생경함과 더불어 소수자 교육으로 인한 인식전환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그들은 급격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소수자' 용어에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1차적 분석은 이들의 수업구성 흐름에 나타난 활동사례와 유형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IV-2> 예비교사의 소수자관련 수업구성에 나타난 활동 유형

구분	수업자	수업에 나타난 대표적 활동 사례	활동유형
1	A	1)차별하는 한국인 차별받는 한국인 2)다문화소년의 왕따 일기	문답식, 설명
2	B	1)블루시안의 가위바위보 2)인권조사기자단	스토리텔링, 조사
3	C	1)차별사례찾기 2)사례를 역할극으로 꾸미기	조사, 역할극
4	D	1)역할극을 통하여 피해자 입장 되어보기 2)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알기	역할극, 토의
5	E	1)어린이의 권리 탐구 2)어린이권리 서약서 작성하기	조사, 활동지원성
6	F	1)소수자의 권리침해사례 2)편견버리기	조사, 토론
7	G	1)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시청 및 친구모습 상상 2)약자를 배려하는 방법	영상시청, 토의
8	H	1)다양한 소수자 차별사례 이해 2)소수자의 권리보호 해결방법	설명, 토의발표

9	I	1)소수자의 인권 의미 2)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해	문답식
10	J	1)소수의 사람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설설정 2) 가설에 대한 입증 및 검증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한 탐구
11	k	1) 신념과 환경에 따른 권리의 침해 2)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이유	설명, 문답
12	L	1) 시대와 장소 등에 따른 소수자의 모습과 특징 2) 차별이 아닌 차이	연극, 문답
13	M	1) 믿을 수 없는 이야기 2) 시각장애인으로서 사는 법	영상시청, 문답
14	N	1) 상황극1 시연하기: 강자와 약자(선천적 능력의 차이) 2) 상황극2 시연하기: 달라진 강자와 약자(후천적 결정에 따른 능력의 차이)	게임을 적용한 역할극, 문답

분석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사회과교육1 강좌를 통하여 사회과교육의 핵심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의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과수업에서 단순한 교사의 주입식 설명이나 학생 만의 활동형 수업보다는 자료와 발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수업을 다수 구성하였다. 그들의 수업에 나타난 주요 활동들은 ‘차별’, ‘인권’, ‘소수자’, ‘권리’, ‘편견’, ‘차이’ 와 같이 소수자 관련 핵심용어와 ‘역할극’, ‘탐구’, ‘상상’, ‘입증’ 등과 같은 활동의 유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수업내용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편견을 받는 사례를 다루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 그들이 차별을 받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예비교사 N은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는 상황극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는 가를 실연하게 하고, 소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정도를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사회적 편견으로 소수자가 고통 받음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강화하였다. 예비교사의 수업활동에서 교사들은 주로 이야기나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식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2차적 수업분석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예비교사가 강조하는 소수자의 사례와 유형을 파악하였다. 예비교사의 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의 사례는 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생에게 가장 강조하는 소수자 혹은 중시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이 수업사례로 제시한 소수자를 연구자의 소수자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교사가 인지하는 혹은 그렇지 못하는 소수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예비교사의 사회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 유형 구분

구분	수업자	수업에 나타난 소수자 사례	소수자 유형 기준
1	A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노동자, 여성, 종교	가족구성, 인종, 이주문화, 성, 종교적 신념, 경제적능력
2	B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린이	이주문화, 인종, 경제적능력, 가족구성, 연령
3	C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성, 신체적능력, 연령
4	D	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어린이	성, 가족구성, 연령, 인종
5	E	북한이탈주민, 흑인,	이주문화, 인종
6	F	유색인종	인종
7	G	여성아동, 장애인, 유색인종	성, 연령, 신체적능력, 인종
8	H	어린이,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연령, 인종, 경제적능력, 신체적능력

9	I	흑인, 어린이, 장애인, 탈북청소년	인종, 연령, 신체적능력, 이주문화
10	J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신체적능력, 인종, 경제적능력
11	k	빈민, 장애인, 종교적차별, 흑인,	경제적능력, 신체적능력, 종교적 신념, 인종
12	L	특별한 두발모양, 빈민, 계약직노동자, 생김새	신념, 경제적능력, 신체적능력
13	M	장애인, 어린이, 북한이탈주민	신체적능력, 연령, 이주문화
14	N	여성, 어린이, 노인, 빈민국 국민,	성, 연령, 신체적 정신적능력, 사회적 경제적능력,

예비교사들이 소수자로 제시한 사례에는 장애인 8회, 어린이 7회, 여성 5회, 유색인종 5회, 외국인 노동자 4회, 노인 3회, 북한이탈주민 3회, 다문화가족 2회, 소수종교 2회, 빈민 2회, 노숙자 1회, 특별한 두발 등 독특한 자기개성 1회, 계약직노동자 1회 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은 장애인을 소수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하고 있는 데, 이것은 예비교사의 오랜 교육적 경험에 의존한 결과이다. 그 다음 빈도가 높은 사례는 어린이, 여성, 노인, 유색인종과 같이 성, 연령, 인종 등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수자 유형을 강조한다. 그 외 한국사회로의 이주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지닌 소수자의 유형으로,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을 제시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소수자의 출현에 민감하기보다는 성이나 인종 등 선천적 요인으로 고정된 소수자의 사례를 많이 제시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된 시각을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은 실제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숙자나 사회 부적응자, 비정규직 노동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자료 활용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소득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형성되는 소수자 유형의 확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비교사 L은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독특한 스타일리스트 사례를 소수자로 제시하였다. 이는 여타의 사례와 달리 현대 사회의 구성원 일부가 스스로 소수자 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처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소수자는 선천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하여 고정된다는 입장에서 나아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다양한 기준의 새로운 소수자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소수자는 다수자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소수자 되기가 가능하다. 소수자는 단지 타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교과서적 기술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특별한 사례로 주목되었다.

3차 수업분석에서는 소수자 관련 수업의 흐름 및 발문과 설명 내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예비교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소수자의 의미 혹은 개념을 탐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업구성에 있어서 소수자를 강제화한 개념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소수자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자신이 인식하는 소수자의 의미 내지 소수자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본 분석에서는 소수자의 의미와 더불어 그들의 소수자 수업에 나타난 핵심적 교육 내용을 반편견(일종의 평등적 차원), 반차별, 소수자권리보호, 정체성 및 다양성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예비교사가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IV-4> 예비교사의 소수자 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의 의미와 강조내용

순	수업자	수업에 나타난 소수자의 의미와 개념	수업에서의 강조점
1	A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조건을 지닌 사람	반편견, 반차별
2	B	사회적으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수자 권리

3	C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요인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반차별
4	D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	소수자 권리
5	E	다수의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 권리
6	F	소수의 집단으로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	반편견
7	G	우리와 다른 사람들	반차별
8	H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나 집단	반차별, 소수자 권리
9	I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	소수자 권리, 정체성
10	J	다수자와 달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자의 권리
11	k	경제적능력의 부족이나 신념의 차이로 사회에서 차별받는 약자	정체성, 소수자의 권리
12	L	시대나 장소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	정체성, 다양성, 반차별, 반편견
13	M	선천적, 후천적인 요인으로 주위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반편견, 소수자의 권리
14	N	한 집단내에서 신체적,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음	반차별, 반편견, 소수자의 권리

<표IV-4>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은 소수자를 타자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 즉 인권 교육적 입장의 의미를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다수자의 반대입장에 처한 사람을 소수자로 인식하기도 하는 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수자가 결정된다는 오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일부 예비교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거나,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소수자가 결정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수자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정의한 견해인데, 이는 '우리'는 다수자이며, 우리와 다른 '그들' 즉 우리 외부의 타자가 곧 소수자라는 의미로, 소수자를 우리와 동화되어야 하는 타자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예비교사 L, M, N의 경우처럼 소수자가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하며, 특히 우리의 누군가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하 일부 생략)

V. 결론 및 제언

예비교사의 소수자 관련 수업은 한국사회가 인식하는 소수자 문제를 함의한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교육은 자국중심의 편협한 시각을 극복하고 있으며, 소수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의 소수자 인식은 자국중심의 문화우월성을 내포한 상대주의적 시각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을 통하여 소수자의 문화를 인정하도록 계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안을 주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은 한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박경태, 2010:178). 소수문화 인정의 핵심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6) 여기서의 문화 다양성은 이종일(2014: 372)이 제시한 다양성(diversity)의 다섯 가지 차원 중에서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호평등관계로서의 다양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등차원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가치중립적 다양성이나 적응 차원의 이종적 의미가 아닌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거나 '문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한 사회의 하위 집단이 상호의존하며 서로의 권리와 공정성을 인정한다는 평등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각 문화의 고유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 간의 상호평등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소수자교육이란 자국중심의 문화우월성을 벗어나서 소수자의 정체성과 소수문화의 인정이 동반된 교육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사회교과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비록 2007개정에 비하여 2009개정 사회교과서가 소수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소수자 사례를 추가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국정교과서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소수자의 유형은 물론 소수자 교육의 내용 또한 불충분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문화와 인권교육의 일부로서의 소수자교육이 독자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현재의 사회교과서는 피부색이나 생긴 모습, 연령이나 성 등 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편견요인을 중심으로 소수자를 재현한다. 2009개정교과서에서는 종교와 경제적 요인 등 일부를 추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숨겨진 그늘과 드러낼 수 없는 소수자는 무시되었다. 소수자 유형에 대한 적극적 확대는 소수자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국의 사회교과서가 지닌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수자의 역할이나 능력, 사회적 관계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소수자 관련 단원이나 주제가 있으며, 소수자는 이 주제에 한정하여 다루어진다. 이것은 교사의 소수자관련 수업구성 또한 제한한다. 그러나 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회교과서가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용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를 한 단원의 일부 페이지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회교과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자료나 사례 속에서 소수자를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는 사회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문제가 예비교사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예비교사의 소수자 관련 수업에 나타난 문제에도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관점이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에게 소수자는 어렵고 불쌍하며 도와 주어야만 하는 약자의 집단이며, 소수자에 대한 평등차원의 다양성은 배제된다. 앞서 기술한 바처럼 이러한 인식은 사회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풍토를 지속시킨다. 소수자의 문화가 다수자의 문화에 흡수되도록 하는 이른바 동화주의적 입장이 문제가 되듯이, 소수자의 문화가 다수자의 문화와 고립되는 이질화 현상 또한 사회의 발전이나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자의 권리와 문화 또한 다수의 사람과 평등을 유지하는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다(박경태, 2010:187). 소수자관련 수업에서 교사들은 문화인정과 공유를 초월하여 제도적 평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소수자의 다양한 문화 찾기, 우리와 다른 점 이해하기, 음식 만들어 함께 먹기 등과 같은 친밀일률적인 다문화적 수업보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좋은 수업의 출발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자를 사실대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수업이다. 예비교사의 수업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